

◆ 일본 미쓰이 물산, 인도네시아 정유소 개선 프로젝트 추진

일본 미쓰이 물산이 인도네시아에서 정유시설 개발을 추진중이다. 동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국영석유사인 Pertamina가 자바 섬의 기존 정유시설 2개소에 무연가솔린 생산설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미쓰이 물산은 Pertamina가 생산하는 저유황 중유를 장기 구매하는 한편, 이를 상환 자원으로 하여 2억 5,000만 달러의 자금조달에 착수할 예정이다. 미쓰비시 상사도 동 프로젝트에 공동 협력사로 참여한다.

1997년의 통화위기 이후 Pertamina는 LNG 플랜트 개선 사업을 제외하고는 설비 신·증설 사업이 정체 상태에 있다. 이번 프로젝트가 시행되면, Pertamina의 정유시설 개선사업은 7년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Pertamina는 독자적으로 EPC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쓰이 물산은 연내 자금조달 관련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불스카이 프로젝트로 명명된 동 사업은 Pertamina가 자바 섬에 보유하고 있는 차라차프 정유소와 바론간 정유소에 리포

머 등의 품질개선 장치를 증설하는 프로젝트이다. 총 사업비는 바론간 정유소 2억 달러, 차라차프 정유소 1억 달러로 추정되며 약 24개월간의 공기를 거쳐 2004년 완공될 예정이다. 미쓰이 물산은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의 자원수입금융의 활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중은행과도 협력할 예정으로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계은행 및 IMF로부터의 구제금융 수혜의 한 조건으로서 대기오염이 심각한 자바 섬 일대의 환경규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어 Pertamina는 정유소에 무연가솔린 장치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를 위해 Pertamina는 일본의 특별 엔차관 도입을 검토한 바 있으나, 독자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미쓰이 물산을 장기구매자 겸 자금조달 주간사로 선정하였다.

EPC 계약을 위한 입찰이 공고되면 한국, 일본, 유럽, 미국의 업체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金 廷 勳】